



2023년 10월 15일(제1162호) 연중 제28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무엇을 꾸며야 하나”

바람이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선선해서 어디를 가도 좋은 날씨가 바로 이때쯤이죠. 사실 이맘때쯤에는 사제품을 준비하는 부제님들이 첫 제의를 맞추기 바쁩니다. 서품식과 첫 미사 때 입고 한생 입을 거라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음... 좀 많아요.

제의에 이렇게 저렇게 의미 부여도 많이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도 많고, 너무 호들갑을 좀 떨었나 봅니다. 그때쯤에 한 동기 부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 마음과 영혼을 좀 그렇게 예쁘게 꾸며라.”

아, 냉정하고 합당한 통찰이었습니다. 동기의 입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꾸밀까 하는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진정 무엇을 꾸며야 할까.’

오늘 복음의 혼인 잔치에는 여러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잘난 이나 부족한 이나,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상관없이 모두를 부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었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을 내쫓습니다.

바로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죠. 어찌 됐든 다른 이들은 모두 각자의 예복을 입고 왔다는 말입니다. 갖춰야 할 것을 갖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지만, 동시에 갖춰야 할 각자의 몫, 각자의 예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봐 야지요. 우리의 예복은 어떻게 꾸미고 있나요.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믿음’이라는 고운 천위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행’의 보석도 달아보고, ‘기도’로 수도 놓아보고, ‘희생’의 띠도 두르고, 그렇게 하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름다운 예복처럼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느님을 마주 뵈을 때 그 수많은 선행과 희생과 기도와 사랑들이 반짝 반짝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 땅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금 그 예복을 꾸며야겠지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예복은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계신가요?”



윤기훈(미키엘) 신부  
백두산(육군 제21보병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25,6-10ㄱ

### 회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시

필리 4,12-14.19-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음

마태 22,1-14

### 영성제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어덯 번째 시헌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안의 딸들에게서 두 명의 사제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모이고, (최양업 신부님의 모친) 이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

이 마리아는 4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타고났는데, 열여덯 살 때에 프란치스코와 결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일을 지혜롭게 꾸려나갔으며 식구들 간에 불화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향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 험한 산속으로 방황하기를 수년을 거듭하였는데도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참아 받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이사갈 때나 먼 길을 걸을 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칭얼거리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가시던 이야기와 갈바리아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식들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을 키워 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남편을 여의고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1839년) 포졸들이 집을 덮쳤을 때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남은 물건들 중에 무엇이든지 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먹였습니다.

포도청으로 출발하던 날 일행은 벌써 떠났는데, 마리아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므로 그 준비를 위해 집안에서 물건을 조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인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초대장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이에게.

참 귀한 자리에.

그 마음이 참 귀하여.

그이에게, 그 자리에

잘 어울리는 이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대!

이미 귀한 이입니다.

하여, 이렇게

초대장을 드립니다.

인화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혼인 잔치의 비유



베르나르도 스트로치  
(1581년 ~ 1644년)  
1636년경 제작  
프레스코 천장화를 위한 스케치화,  
캔버스 위 유희  
리구스티키 미술관 소장  
이탈리아

본 작품은 화가가 프레스코 천장화를 위해 제작한 스케치화로, 스케치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천장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는 이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려졌고, 오늘 복음 말씀의 장면(아래 발채)을 보여주고 있다. 빙 둘러싼 혼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과 음식을 나르는 하인이 배경에 그려져 있고, 중앙의 적절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인물은 손과 발이 묶이고 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히인을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지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마태 22,11-14)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8주일: 해군사관학교 최승범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10월 15일(주일)
- 주교회의의 문화예술위원회 총회  
    때·곳: 10월 17일(화) 14:00, CBCK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교의 열매, 새레상사!” - “아버지와 이들과 상량의 이름으로 새레를 주어라.” (마태 28,19)